

여자청소년의 섭식장애증상과 사회문화적 요인의 관계

이 은 주*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의 섭식장애증상과 사회문화적 변인들(성역할 정체성, 대중매체의 영향력, 사회적 체격불안)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 변인들이 섭식장애증상을 설명하는 정도를 탐색하였다. 중학교 여학생 653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역할 정체성 유형에 따라 섭식장애증상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역할 정체성(여성성과 남성성), 대중매체의 영향력, 사회적 체격불안, 섭식장애증상 각각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였다. 섭식장애증상은 대중매체의 영향력, 사회적 체격불안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섭식장애증상과 관련한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는 요인들을 다른 요인들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주제어 : 섭식장애증상, 성역할 정체성, 대중매체, 사회적 체격불안, 여자 청소년

* 제주대학교, flym2m@jejunu.ac.kr

I. 서 론

섭식장애의 특징 중 하나는 주로 소녀와 젊은 여성에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장애의 분류는 변화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유형인 거식증(anorexia nervosa)과 폭식증(anorexia bulimia)은 각각 13-20세와 15-18세에 주로 발생하며, 남성보다 여성에서 6-10배 더 많이 나타난다(Cochrane, 2005).

미국에서 여성들의 섭식장애 평생 유병율은 거식증이 약 0.5%, 폭식증이 약 1-3%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한국의 경우 보건복지부(2008)가 2001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정신질환실태 역사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거식증 평생 유병율은 2001년에는 0.0%, 2006년에는 0.1%였고, 폭식증의 유병율은 각각 0.1%와 0.2%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미국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그러나 이 조사결과는 18-64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섭식태도검사(EAT-26)로 조사한 1996년의 한 연구(유희정 외, 1996)에서는 섭식태도 이상자(특히 거식증을 의미)로 판정된 경우가 조사대상의 3%였으나, 같은 기준을 따른 2007년의 연구(천숙희, 2007)에서는 23.5%로 나타나, 약 10년 동안 거의 8배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검사가 정확한 진단적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섭식장애증상을 가진 여자청소년들이 늘고 있으며, 이 장애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중재개발의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섭식장애의 또 다른 특징은 비서구 사회나 비자본주의 사회에는 없지만(Fraad, 1990; Gerber, 2005), 한 사회에서 섭식장애가 급증한 시기가 산업화나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여성의 성역할 정체성에 변화가 오고 대중매체가 발달한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Featherstone, 1991; White, 1991).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성 때문에 섭식장애는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현대 여성의 질병”(Fraad, 1990)이라고도 불린다.

섭식장애 연구자들이 사회문화적 요인들 중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성역할 정체성이었다(Murnen & Smolak, 1997). 생물학적 성과 달리 성역할 정체성은 어떤 태도, 행동, 그리고 성격이 전형적으로 남성적 혹은 여성적인가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에 근거한 사회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Hepp et al., 2005). 초기의 관련 연구에서

는 여성들에게 섭식장애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성적 섹슈얼리티와 정체감의 일차적 요인으로 사회가 마른 몸을 과도하게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되었다(Collins, 1988). 그러나 이 주장이 관련 연구에서 언제나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Cantrell 과 Elis(1991)은 오히려 남성적 성역할 정체성을 보이는 여성에서 섭식장애증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혼란스런 결과들을 해결하기 위해 Murnen과 Smolak(1997)은 섭식장애와 성역할 정체성의 관계를 다룬 26개의 연구에 대해 메타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에서 섭식장애 여성은 비-섭식장애 여성보다 여성성의 효과크기가 유의하게 높고, 남성성의 경우는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한국의 여자청소년의 성역할 정체성과 섭식장애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우나, 최근 19-27세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선안남(2008)의 연구에서 여성성 점수와 남성성 점수가 이들의 섭식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여자청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또 이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성의 측정도구로 정진경(1990)의 한국 성역할 검사를 사용하였지만,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만 사용하였을 뿐, 성역할 정체성 유형(여성적, 남성적, 양성적, 미분화)에 따른 차이는 분석하지 않았다. 현대 한국의 여자청소년들이 과거 세대와 다른 성역할 정체성 유형을 요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동기에 소녀들은 소년들에 비해 성별에 관련된 제한을 적게 받지만, 청소년이 되면 엄격한 여성적 성역할 요구와 함께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진 유능한 여성상을 성취해야 한다는(성미정, 2004), 즉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는 압력을 경험한다. 자아가 종종 신체적 자아로 해석되기 때문에, 슈퍼우먼이라는 이상의 추구하고 완벽한 자신을 위한 투쟁은 젊은 여성들에서 완벽한 신체를 위한 투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결과 섭식장애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White, 1991). Gerber(2005)의 연구에서도 “슈퍼우먼 이상형”의 성역할 정체성 가진 여성들이 섭식장애증상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매우 활발해지고, 교육현장에서도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보다 양성평등주의와 양성성 배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김정희, 2005; 성미정, 2004)는 점을 감안하면, 섭식장애가 출현하는 시기에 있는 여자청소년의 성역할 정체성과 섭식장애증상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여성의 구체적 모습을 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이나 가

정훈육보다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텔레비전을 비롯한 대중매체이다. 산업화 시대 소비문화의 상징인 대중매체는 날씬한 사람, 특히 날씬한 여성은 성공하고 행복해지며, 비만한 여성은 비웃음을 받는 많은 프로그램들과 광고를 통해, 날씬함이 여성적 아름다움의 기준이며 성공의 비결일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매력, 즐거움, 행복, 사랑의 조건임을 미묘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전달한다(Collins, 1988). 대중매체 속에서 여성의 날씬함은 전통적인 여성적 정체성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진취적 여성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이다. 여성은 직업과 가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를 선택하건 간에 날씬해야만 성공하고 행복해진다.

대중매체, 특히 텔레비전이 여자청소년들의 섭식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가 Becker 등(2002)에 의해 수행되었다. 연구자들은 텔레비전이 없던 피지에 텔레비전이 도입된 직후와 그리고 이로부터 3년 후에 여자청소년들의 섭식장애증상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비정상적인 섭식태도와 행동수준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섭식장애의 주요증상인 자가 유도성 구토의 비율은 0%에서 11.3%로 급증하였다. 또 초기 청년기 소녀들에서 매체소비(텔레비전과 잡지)와 섭식장애 발생 간의 관계를 16개월 간격으로 두 번 조사한 Vaughan과 Fouts(2003)에 따르면 잡지를 많이 읽는 것과 섭식장애증상은 유의하게 연관되었으며, 전체적인 매체소비의 저하는 비정상적 섭식의 저하와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신미영(1997)에 따르면 대중매체의 소비는 17-25세의 여성들의 거식증상과 폭식증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김재숙과 이미숙(2001)의 남녀 초,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TV매체소비가 특히 중학교 여학생 집단에서 더 심각한 신체상 왜곡을 유발하였다. 최윤정(2005)은 “마른 몸매”를 강조하는 TV 프로그램과 잡지가 여대생보다 여고생들의 신체불만족과 다이어트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장희순(2004)은 다양한 조건(“날씬 조건”, 신체적 미를 강조한 자극; “뚱뚱 조건”, 뚱뚱하지만 긍정적인 모습을 강조한 자극; “통제 조건”, 중성적인 자극)의 비디오를 보기 전과 후에 초, 고, 대학 여학생에서 실제 체격과 이상형 체격(신체상 지각)의 차이, 그리고 신체존중감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세 집단 모두에서 “날씬 조건”의 비디오를 본 집단에서 신체상지각의 차이가 커지고, 신체존중감은 저하되었지만, 그 차이가 가장 큰 집단은 여고생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행해진 이 연구들은 주로 TV나 잡지와 같은 1-2개의 매체만을 포함하거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거

나, 또 섭식장애증상 자체가 아닌 관련개념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중매체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고 모방성이 강한 여자청소년들(권성호·류미아, 2001)이 변화한 매체 환경(인터넷의 발달, 홈쇼핑 전문 채널 등장 등)에서 체중조절이나 몸매 가꾸기를 다루는 프로그램, 기사 혹은 광고에서 받는 영향력이 그들의 섭식장애증상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들은 사춘기에 도달하면서 자신의 몸에 타인이 관찰 가능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달라진다고 느낀다(이은주, 2005). 대중매체가 유포하는 것이든 가족이나 친구들의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된 것이든, 이러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여자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신체적 매력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판정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신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정서를 Hart 등(1989)은 사회적 체격불안이라 명명하였다. 사회적 체격불안은 신체에 대한 대인관계적인 평가가 예상되거나 실제로 평가될 때 생기는 사회적 신체정서이다. 이것은 자신의 신체를 지각하여 느끼는 신체만족도나 신체존중감과 같은 개인적 신체정서와 관련이 있지만, 타인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다르기도 하다(Hart et al, 1989). Hart 등(1989)은 사회적 체격불안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다고 주장하였는데, 장진우와 손원일(2004)의 남녀중학생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elby(2005)에 따르면 신체만족도가 일생을 통해 나이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한 것에 비해, 사회적 체격불안은 특정시기에 고조되었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는 18-34세의 여성들이 35세 이상의 여성들보다 더 높은 사회적 체격불안을 나타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젊은 여성들이 자신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는 또 사회적 체격불안이 여성 자신의 신체감시와 수치심과도 높은 연관성이 있으며, 이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건강보다는 외모를 위해 운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체격불안은 주로 운동이나 무용과 같이 신체적 기량을 타인 앞에서 표현해야 하는 영역에서 사용되어 왔다. 유진과 이선애(2005)는 무용수들에서 사회적 체격불안이 섭식장애를 예측하는 요인임을 밝혔고, 또 Krane 등(2001)은 일반인과 운동선수의 섭식장애 발생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

지만 사회적 체격불안을 한국의 여자청소년들의 섭식장애증상과 관련하여 살펴본 연구는 찾기 힘들고, 이 개념과 성역할 정체성이나 대중매체의 영향력의 관계를 본 연구도 거의 없다. 여자청소년의 사회적 체격불안과 다른 사회문화적 요인들 그리고 섭식장애증상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섭식장애에 대해 더 나은 설명을 하고, 중재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성역할 정체성, 대중매체의 영향력, 사회적 체격불안을 섭식장애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 세 가지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유전, 신경-화학, 발달, 성격, 가족 등의 다양한 다른 요인들(김정옥, 2000; Cochrane, 2005)보다 섭식장애와 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거나 혹은 이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섭식장애와 사회문화적 요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최은정(2005)이 1990년부터 2004년 전반기까지 여러 분야의 연구에서 나온 섭식장애 관련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 대상 73편의 연구에서 관련 변인은 25개였는데, 이 변인들은 주로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었으며, 사회문화적 변인을 다룬 연구는 매우 소수였다.

섭식장애는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유희정 외, 1996; 천숙희, 2007), 정신 질환 중 가장 사망률이 높고 치료하기는 여전히 어렵다(Gerber, 2005). 이에 섭식장애를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예방대책과 중재법을 개발하기 위해 기초 자료를 더 많이 모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 정체성 유형(여성적, 남성적, 양성적, 미분화)에 따라 섭식장애 증상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성역할 정체성(여성성과 남성성), 대중매체 영향력, 사회적 체격불안 그리고 섭식장애증상은 각각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셋째, 섭식장애증상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떤 변인들인가?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여자청소년의 섭식장애증상과 성역할 정체성, 대중매체의 영향력, 사회적 체격불안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섭식장애증상의 영향 변인을 찾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1. 연구 대상 및 절차

제주도의 중·고교를 임의로 선정하고 방문하여, 학교 당국의 허락을 얻었다. 교사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포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수락한 경우에 연구목적과 연구 대상자의 권리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였다.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설문지의 앞면에 연구목적, 익명성 보장, 설문작성 거부나 포기 등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교사들이 재량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학교(여학교 2개교, 남녀공학 2개교)나 고등학교(여학교 2개교, 남녀공학 5개교)에 재학하는 2학년 653명의 여학생들이었다. 자료는 2006년 10월 11일~11월 6일에 수집하였다.

2. 연구 도구

1) 성역할 정체성(Sex Role Identity, SRI)

정진경(1990)이 개발한 한국형 성역할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에서 여성성(20문항)과 남성성(20문항)을 측정하는 40문항 도구(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성을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였다. 첫째, 한 개인이 가진 여성성과 남성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점수로 사용하였으며, 이 때는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성역할 정체성을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중앙치 분리법에 따라 응답자의 여성성과 남성성 점수가 둘 다 중앙치(여성성은 81, 남성성은 79) 이상이면 양성적, 여성성 점수 혹은 남성성 점수 중 어느 하나만 중앙치 이상이면 여성적 혹은 남성적, 그리고 두 점수 모두 중앙치 미만이면 미분화 성역할 정체성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 전체는 Cronbach's Alpha .94, 그리고 여성성과 남성성 하위 척도는 모두 .92이었다.

2) 대중매체의 영향력(Influences of Mass Media, IMM)

신미영(1997)이 성인여성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청소년인 대상자의 특성과 매체환경 변화(인터넷 발달과 홈쇼핑 잡지 및 채널 등장)를 반영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도구는 “체중조절이나 몸매 가꾸기”를 다루는 7개의 매체(신문 기사와 광고, 인터넷기사와 광고, TV쇼나 오락프로, TV광고, 홈쇼핑 TV와 책자, 잡지, 그리고 비디오와 영화)에 대해 보는 정도인 노출도(5점 척도)와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인 관심도(5점 척도)를 각각 측정하는 항목들을 포함하였다. 한 매체의 영향력(25점 척도)은 노출도와 관심도를 구하고, 두 점수를 종합하여(노출도 \times 관심도) 산출하였다. 이 점수는 어떤 매체를 자주 접하지 않는다고 해도 관심이 많다면 그 매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신미영, 1997). 본 연구에서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7개의 매체 영향력의 평균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영향력 척도는 Cronbach's alpha가 .91, 노출도와 관심도는 각각 .89와 .91이었다.

3) 사회적 체격불안(Social Physique Anxiety, SPA)

Hart 등(1989)이 개발한 사회적 체격불안 척도(12문항,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이 도구를 번안하고, 보건교사 1인과 함께 검토한 후, 중학교 2학년 학생 10명에게 응답하도록 하여, 대상자들의 도구에 대한 이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76이었다.

4) 섭식장애 증상(Eating Disordered Symptoms, EDS)

신미영(1997)이 섭식태도검사(Eating Attitudes Test)에서 추출한 거식증상 12문항과

섭식장애검사(Eating Disorder Inventory)에서 뽑은 폭식증상 12문항으로 구성된, 총 24문항 5점 척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분석결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거식증상 중 2문항을 제외한 10문항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도구 전체의 alpha는 .85, 거식증상과 폭식증상 하위척도는 각각 .71과 .83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PC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성역할 정체성 중 명목변수에 대해서는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고 차이검증은 χ^2 -test로 하였으며, 연속변수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다. 일반적 특성과 성역할 정체성에 따른 대중매체의 영향력, 사회적 체격불안, 섭식장애증상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heffe 검증을 하였다. 여성성과 남성성, 대중매체의 영향력, 사회적 체격불안, 그리고 섭식장애증상의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알아보았고, 거식증상, 폭식증상, 섭식장애증상 전체 각각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과 성역할 정체성 유형

본 연구 대상자인 여자청소년들은 중학생이 349명(53.4%)이었고, 고교생은 304명(46.6%)으로 총 653명으로 구성되었다. 연령은 중학생이 14.1(SD=0.30)세, 고교생은 17.1(SD=0.36)세이었다. 중학생의 체중은 49.6(SD=6.91)kg, 신장은 159.1(SD=0.05)cm 이었고, 고교생의 체중과 신장은 각각 52.9(SD=6.38)kg와 161.2(SD=0.05)cm이었다.

〈표 1〉은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학교유형, 지각한 체형과 이상적 체형)과 성역할 정체성 분포를 학교급별로 비교한 것이다. 대상자들 중에는 남녀공학에 다니는 경우 (52.2%)가 더 많았고, 중학생은 여학교(57.6%)에, 그리고 고등학생 중에는 남녀공학

(63.5%)에 다니는 경우가 유의하게 더 많았다($\chi^2 = 28.936, p < .05$). 자신이 지각한 체형을 보통체형(73.2%)이라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중고교생들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소녀들이 바라는 이상적 체형은 보통체형(84.3%)이 가장 많았으나, 중고교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chi^2 = 2.637, p < .05$), 중학생은 날씬한 체형을, 고교생은 보통체형을 원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대상자들의 성역할 정체성에서 여성성 점수는 중학생이 91.25(SD=9.47), 고교생은 93.04(SD=11.08)였고,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t = -0.892, p > .05$). 남성성 점수 역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t = -1.494, p > .05$), 중학생이 89.03(SD=9.87), 고교생이 92.20(SD=13.19)이었다.

여학생 전체의 성역할 정체성은 양성적인 경우(36.3%)가 가장 많고, 다음이 미분화(28.6%)였으며, 여성적 정체성의 빈도가 가장 낮았다. 중학생은 미분화의 비율이, 고교생은 양성적, 남성적, 여성적 정체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 차이는 유의하였다($\chi^2 = 8.214, p < .05$).

<표 1> 대상자의 학교급별 일반적 특성과 성역할 정체성 유형의 차이

					(N=653)
변인(단위)	범주	중학생(%)	고등학생(%)	계(%)	χ^2
학교유형	여학교	201(57.6)	111(36.5)	312(47.8)	28.936*
	남녀공학	148(42.4)	193(63.5)	341(52.2)	
지각한 체형	날씬한	43(12.3)	31(10.2)	74(11.3)	0.817
	보통	251(71.9)	227(74.7)	478(73.2)	
	살찐	55(15.8)	46(15.2)	101(15.5)	
이상적 체형	날씬한	47(13.5)	29(9.5)	76(11.6)	2.637*
	보통	287(82.2)	264(86.8)	551(84.4)	
	살찐	15(4.3)	11(3.6)	26(4.0)	
성역할 정체성	여성적	51(14.6)	57(18.8)	108(16.5)	8.214*
	남성적	61(17.5)	60(19.7)	121(18.5)	
	양성적	121(34.7)	116(38.2)	237(36.3)	
	미분화	116(33.2)	71(23.4)	187(28.6)	
계		349(53.4)	304(46.6)	653(100.0)	

* = $p < .05$

2. 일반적 특성과 성역할 정체성 유형에 따른 섭식장애증상의 차이

섭식장애증상 중에 거식증상은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심했으며($t=-3.239$, $p<.05$), 학교유형, 지각한 체형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2〉 참조). 이상적 체형에 따른 거식증상은 날씬한 체형>뚱뚱한 체형>보통체형 순이었고, 이것은 유의한 차이였다($F=8.559$, $p<.05$). 또 성역할 정체성에 따른 거식증상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3.427$, $p<.05$), 양성적≥남성적≥여성적=미분화의 순이었다. 섭식장애증상 중에 폭식증상 역시 여중생에 비해 여고생이 유의하게 높았다($t=-4.662$, $p<.05$). 성역할 정체성에 따른 폭식증상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5.102$, $p<.05$), 양성적≥여성적=남성적≥미분화 순으로 증상점수가 높았다. 하지만 학교유형, 지각한 체형, 그리고 이상적 체형에 따른 폭식증상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섭식장애증상 전체는 중학생에 비해 고교생이 유의하게 심했으나($t=-4.806$, $p<.05$). 학교유형, 지각한 체형, 이상적 체형에 따른 섭식장애증상 전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역할 정체성에서는 양성적≥여성적=남성적≥미분화 순으로 섭식장애증상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102$, $p<.05$).

〈표2〉 일반적 특성과 성역할 정체성에 따른 섭식장애증상

(N=653)

변인	범주	거식증상		t or F	폭식증상		t or F	섭식장애 증상전체		t or F
		M	SD		M	SD		M	SD	
학교급	중학교	2.55	0.60	-3.293*	1.61	0.55	-4.662*	1.81	0.05	-4.806*
	고등학교	2.71	0.63		1.82	0.60		2.00	0.53	
학교유형	여학교	2.59	0.62	-1.657	1.73	0.60	0.992	1.90	0.53	-0.150
	남녀공학	2.67	0.61		1.69	0.56		1.90	0.51	
지각한 체형	날씬한	2.67	0.56	0.296	1.65	0.49	2.093	1.81	0.40	2.387
	보통	2.62	0.64		1.69	0.57		1.89	0.53	
	살찐	2.64	0.56		1.81	0.67		1.98	0.56	
이상적 체형	날씬한	2.90a	0.61	8.559*	1.67	0.51	1.093	1.96	0.43	1.280
	보통	2.59c	0.60		1.70	0.58		1.88	0.52	
	살찐	2.72b	0.86		1.86	0.79		2.02	0.75	
성역할 정체성	여성적	2.58b	0.65	3.427*	1.71ab	0.60	3.513*	1.89ab	0.53	5.102*
	남성적	2.63ab	0.60		1.68ab	0.54		1.87ab	0.46	
	양성적	2.72a	0.64		1.77a	0.58		2.00a	0.52	
	미분화	2.54b	0.57		1.61b	0.57		1.80b	0.52	

* $p < .05$ Scheffe: a)b)c

3. 성역할 정체성, 대중매체 영향력, 사회적 체격불안과 섭식장애증상의 상관관계

사회문화적 변인들과 섭식장애증상의 상관관계는 <표3>에 제시되었다. 대상 여학생들의 여성성은 남성성($r = .516$), 대중매체의 영향력($r = .137$), 사회적 체격불안($r = .115$), 거식증상($r = .149$), 그리고 섭식장애증상 전체($r = .139$)와 유의한($p < .05$)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폭식증상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남성성은 대중매체의 영향력($r = .194$), 사회적 체격불안($r = .099$), 거식증상($r = .100$), 폭식증상($r = .126$), 그리고 섭식장애증상 전체($r = .150$)와 유의한($p < .05$)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중매체의 영향력과 유의한($p < .05$)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은 사회적 체격불안($r = .284$), 거식증상($r = .434$), 폭식증상($r = .415$), 그리고 섭식장애증상 전체($r = .509$)이었다. 사회적 체격불안은 거식증상($r = .380$), 폭식증상($r = .427$), 섭식장애증상 전체($r = .484$)와 유의한($p < .05$) 상관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거식증상은 폭식증상($r = .427$), 섭식장애증상 전체($r = .815$)와, 그리고 폭식증상은 섭식장애증상 전체($r = .891$)와 유의한($p < .05$)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3> 성역할 정체성, 대중매체의 영향력, 사회적 체격불안, 섭식장애증상의 상관관계

(N=653)

변인	성역할 정체성		대중매체의 영향력	사회적 체격불안	섭식장애증상		
	여성성	남성성			거식증상	폭식증상	섭식장애증상전체
성역할	여성성	1	0.137*	0.115*	0.149*	0.077	0.139*
정체성	남성성		1	0.099*	0.100*	0.126*	0.150*
대중매체의 영향력			1	0.284*	0.434*	0.415*	0.509*
사회적 체격불안				1	0.380*	0.427*	0.484*
섭식장애증상	거식증상				1	0.492*	0.815*
	폭식증상					1	0.891*
	섭식장애증상전체						1

* = $p < .05$

4. 섭식장애증상의 영향 변인

여학생들의 섭식장애증상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거식증상, 폭식증상, 섭식장애증상 전체 각각에 대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4>와 같다. 거식증상은 변량의 31.1%가 설명되었으며, 대중매체의 영향력(22.3%), 사회적 체격불안(8.3%), 그리고 성역할 정체성-양성적(0.5%)이 유의한 설명력($p < .05$)을 보였다.

소녀들의 폭식증상에 유의한($p < .05$) 설명력을 보인 변인들은 사회적 체격불안(18.4%), 대중매체의 영향력(8.6%) 그리고 연령(0.6%)과 이상적 체형(0.6%)이었으며, 28.2%가 설명되었다. 섭식장애증상 전체는 변량의 38.3%가 설명되었는데, 대중매체의 영향력(25.5%), 사회적 체격불안(12.8%)이 유의한 설명력($p < .05$)이 있는 변인이었다.

<표 4> 섭식장애증상의 영향변인

(N=653)

섭식장애증상	변인	β	R^2	Cum. R^2	F	p
거식증상	대중매체의 영향력	0.377	0.223	0.223	185.703	0.000
	사회적 체격불안	0.296	0.083	0.306	76.835	0.000
	성역할 정체성-양성적	0.071	0.005	0.311	4.623	0.032
폭식증상	사회적 체격불안	0.332	0.184	0.184	146.401	0.000
	대중매체의 영향력	0.295	0.086	0.270	75.933	0.000
	연령	0.082	0.006	0.276	5.748	0.017
	이상적 체형	0.080	0.006	0.282	5.754	0.017
섭식장애 증상전체	대중매체의 영향력	0.382	0.255	0.255	215.398	0.000
	사회적 체격불안	0.368	0.128	0.383	129.990	0.000

IV. 논의 및 결론

현대 소비문화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섭식장애는 단순히 영양소의 균형이 맞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이상의 함의가 있다. 이 장애는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를 해석하고, 수용해야하는 소녀의 심리적 특성은 물론, 소녀가 살

고 있는 사회의 특성도 반영한다.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는 변인들이 여성청소년의 섭식장애증상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섭식장애증상과 성역할 정체성의 관계를 보면, 거식증상과 폭식증상, 섭식장애증상 전체가 여성성과 남성성 점수(폭식증상-여성성을 제외하고) 둘 다에 대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 양성적 성정체성을 가진 경우에서 거식증상과 폭식증상, 섭식장애증상 전체에서 다른 성역할 정체성을 가진 경우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회귀분석에서도 거식증상에 대해 양성성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섭식장애가 여성성(Collins, 1988; Murnen & Smolak, 1997)이나 남성성(Cantrell & Elis, 1991) 어느 하나와 관련이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르다. 이것은 오히려 여성성과 남성성을 모두 수용하고, 여성적 영역(가족과 양육)과 남성적 영역(직업적 경력과 자기주장) 둘 다를 성취해야 하기 위해서는 날씬해져야 한다는 압력이 섭식장애, 특히 거식증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Gerber, 2005)의 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또 양성적 성역할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성 고정관념적인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사회적 규준에 훨씬 덜 민감하고, 그에 동조할 필요를 덜 느끼며, 어느 한 성역할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보다 다양한 상황에 더 잘 적응한다(김양희 외, 2002)는 가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여자청소년들의 양성성과 연관된 부정적 결과가 성미정(2004)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여학생들은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경우 우울 수준이 더 높았으며, 이것은 남성성 요인과 여성성 요인을 가진 여학생들이 상이한 역할 요구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양성평등 교육을 통한 양성성의 배양이 교육현장에서 주장되는 바(김정희, 2005), 이러한 결과들은 혼란스럽다. 이에 이 부정적 결과들을 남성성과 여성성의 충돌 결과라고 단정하기 전에 섭식장애증상과 성역할 정체성에 대한 반복연구를 통해 그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체중관리나 몸매 가꾸기”를 다루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거식증상, 폭식증상, 섭식장애증상 전체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 영향력은 섭식증상 변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 상관계수들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유사한 도구를 사용한 신미영(1997)의 연구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대중매체의 영향에 더 취약하다는 주장과 일치하

는 것으로 보인다. 신체상왜곡(김재숙·이미숙, 2001), 신체불만족과 다이어트행동(최윤정, 2005), 신체 존중감 저하(장희순, 2004) 등이 모두 섭식장애증상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 연구들 역시 여성 청소년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섭식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는 신미영(1997)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중매체 영향력의 설명력이 거식증상에 비해 폭식증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 추후연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대해 남성성 점수가 여성성 점수에 비해 상관계수가 약간 더 크지만, 두 영역할 정체성이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Gerber(2005)의 연구에서 여성들의 슈퍼우먼 이상형 수용이 피트니스잡지와 패션잡지 소비와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것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체격불안은 여성성 점수와 남성성 점수, 그리고 대중매체의 영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또 섭식장애증상 전체, 거식증상 및 폭식증상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특히 폭식증상 변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변인이었다. 대상자의 특성상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이 결과는 유진과 이선애(2005)가 무용전공 여고생들의 섭식장애증상을 조사한 결과에서 사회적 체격불안은 폭식증상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Diehl 등(1998)은 사회적 체격불안이 거식증상보다 폭식증상과 더 많이 연관되는 이유가 거식증 환자와 달리 폭식증 환자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사회적 염려가 사회적 체격불안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한국에서 여자청소년의 사회적 체격불안을 다룬 연구가 거의 없어 논의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연구에서 섭식장애증상과 이 요인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White(1991)는 섭식장애 문헌이 심리요법 이론들과 생의학적 원인에 대한 공식들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면서, 섭식장애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끌어들이는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사회문화적 변인들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섭식장애증상을 측정된 다른 연구들의 변인들, 예를 들어, 신체증상과 기분상태(이규은·김남선, 1998), 자아존중감과 신체상(황란희·신혜숙, 2000), 혹은 체중조절 경험, 건강통제위 그리고 우울(성미혜, 2004, 2005)보다 섭식장애증상에 대해 더 높은 상관관계나 설명력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

는 성역할 정체성, 대중매체의 영향력, 사회적 체격불안과 같은 변인들이 섭식장애증상과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밝힌 데 의의가 있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자를 무작위로 표출하지 못하였고, 조사 지역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또 섭식장애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간편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그 측정결과가 진단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해석 시에 유의해야 할 점이다.

위의 결과와 연구 제한점에 근거하여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현대사회에서 섭식장애가 빈발하는 연령의 여자청소년의 성역할 정체성, 특히 양성성과 섭식장애증상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 폭넓은 연령층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으로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양성적 성역할 정체성과 섭식장애증상의 관련성은 섭식장애로 진단받은 환자집단에 대한 연구에서 확인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날씬한 몸'의 허구성을 비판할 수 있도록 학교 건강교육에서 매체 비판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비만교육에서 체중감량보다 정상체중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춘기적 신체변화를 경험하는 여학생들이 자연스런 체형변화를 수용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셋째, 사회적 체격불안은 운동과 섭식행위에 관련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고, 본 연구에서도 섭식장애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후연구를 통해 그 관련성을 다시 확인한다면 섭식장애를 예방하거나 이를 중재하기 위한 방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것은 섭식장애증상과 사회문화적 변인들의 인과적 관계는 아니며, 이 변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추후연구를 통해 그 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권성호·류미아(2001). 미디어교육이 청소년의 TV 광고판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 정보방송방송연구*, 제7권 제3호, pp. 5-28.
- 김재숙·이미숙(2001).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 학회지*, 제25권 제5호, pp. 957-968.
- 김정욱(2000). *섭식장애*. 서울: 학지사.
- 김정희(2005). 양성평등교육이 중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이수연·김혜영(2002).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S -A) 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보건복지부(2008).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2006*. 서울: 보건복지부
- 선안남(2008). 자기 대상화, 신체 수치심이 여대생의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비교.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미정(2004).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미혜(2004). *초등학교 여학생의 섭식장애, 신체증상, 우울 및 건강통제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34권 제3호, pp. 576-585.
- 성미혜(2005). *여대생의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18권 제1호, pp. 71-82.
- 신미영(1997). *대중매체가 여성의 다이어트와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희정·조성민·김성윤·김창윤·홍택유(1996). *한국청소년 섭식장애의 역학*. *정신 병리학*, 제5권 제1호, pp. 130-137.
- 유진·이선애(2005). *무용전공 여학생들의 섭식장애 위험요인 예측인자 분석*. *한국 스포츠심리학회지*, 제16권 제1호, pp. 17-30.
- 이규은·김남선(1998). *여대생의 섭식장애와 신체증상, 기분상태 간의 상관관계*. *여성 건강간호학회지*, 제4권 제3호, pp. 388-401.
- 이은주(2005). *10대 초반 소녀들의 사춘기에 대한 담론분석*. *아동간호학회지*, 제11권 제2호, pp. 179-188.

- 장진우·손원일(2004). 청소년의 사회적 체격불안과 정서 지능의 관계. 한국스포츠 리서치, 제15권 제4호, pp. 1137-1148.
- 장희순(2004). 대중매체가 신체상의 지각과 상태 신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경(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5권 제1호, pp. 82-92.
- 천숙희(2007). 청소년기 여성의 섭식행동과 우울, 분노, 분노표현 및 개인적 특성 (BAS/BIA)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3권 제4호, pp. 310-319.
- 최은정(2005). 섭식장애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2005). 미디어에 의한 여성들의 신체불만족현상에 관한 연구: TV와 잡지소비로 인한 신체불만족 현상과 다이어트, 성형수술에 대한 동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란희·신혜숙(2000). 여고생의 섭식장애와 신체상,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여성 건강간호학회지, 제6권 제1호, pp. 129-14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ecker, A. E., Burwell, R. A., Herzog, D. B., Hamburg, P., and Gilman, S. E. (2002). Eating behavior and attitudes following prolonged exposure to television among ethnic Fijian adolescent girl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 180 No. 6, pp. 509-514.
- Cantrell, P. J., and Ellis, J. B. (1991). Gender role and risk patterns for eating disorders in men and wom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47 No. 1, pp. 53-57.
- Cochrane, C. E. (2005). Eating regulation responses and eating disorders. In C. W. Stuart, and M. T. Laraia (Eds.), *Principles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pp. 517-537). St. Louse Missouri: Elsevier Mosby.
- Collins, F. E. (1988). Education for healthy body weight: Helping adolescents balance the cultural pressure for thinness. *Journal of School Health*, Vol. 58 No. 6, pp. 227-231.

- Diehl, N. S. Johnson, C. E. Rogers, R. L., and Petrie, T. A. (1998). Social physique anxiety and disordered eating: What's the connection? *Addictive Behaviors, Vol. 23*, pp. 1-6.
- Featherstone, M. (1991). The body in consumer culture. In M. Featherstone,, M. Hepworth,, and B. S. Turner(Eds.), *The Body: Social process and cultural theory*(pp. 170-196.). London: Sage Publications.
- Fraad, H. (1990). The female body as a site of gender and class transition. *Rethinking Marxism, Vol. 2*, pp. 79-99.
- Gerber, A. F. (2005). *Trauma, culture and disordered ea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Hart, E. A., Leary, M. R., and Rejeski, W. J. (1989). The measurement of social physique anxiety.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Vol. 11*, pp. 94-104.
- Hepp, U., Spindler, A., and Milos, G. (2005). Eating disorders symptomatology and gender role orien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Vol. 37*, pp. 227-233.
- Krane, V., Stiles-ShIPLEY, J. A., Waldron, J., and Michalenok, J. (2001). Relationships among body satisfaction, social physique anxiety, and eating behavior athletes and exercise. *Journal of Sport Behavior, Vol. 24*, pp. 247-263.
- Melbye, L. (2005). *Self-objectification and exercise behaviors: The meditating role of social physique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Florida State University.
- Murnen, S. H., and Smolak, L. (1997). Femininity, masculinity, and disordered eating: A meta-analy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Vol. 22*, pp. 231-242.
- Vaughan, K. and Fouts, G. T. (2003). Changes in television and magazine exposure and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Sex Role, Vol. 49 No. 7-8*, pp. 313-320.
- White, J. H. (1991). Feminism, eating and mental healt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Vol. 13 No. 3*, pp. 68-80.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Disorder Symptoms and Sociocultural Factors in Adolescent Women

Lee, Eun-Joo*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eating disorder symptoms(EDS: EDS-Anorexic, EDS-Bulimic and EDS-Total) and sociocultural factor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EDS in adolescent women. The sociocultural factors were sex role identity(SRI), influence of mass media(IMM) and social physique anxiety(SPA). The sample consisted of 653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in the 2nd grade.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here were th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SRI (femininity and masculinity), IMM, SPA and EDS($p < .05$, $r = .115 \sim .509$)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femininity and ESD-Bulimic. 38.3% of the variance in ESD-Total was explained significantly($p < .05$) by IMM(25.5%) and SPA(12.8%). 31.0% was of the variance in EDS-Anorexic was explained by IMM(22.3%), SPA(8.3%), and SRI-Androgynous(0.5%). SPA(18.4%), IMM(8.6%), Age(0.6%) and Ideal Figure(0.6%) explained 28.2% of the variance in EDS-Bulimic.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sociocultural factors that reflect the changes of modern society as well as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ones in future research into eating disorders.

Key Words : eating disorders, sex role identity, mass media, social physique anxiety, adolescent women

투고일 : 3월 15일, 심사일 : 4월 16일, 심사완료일 : 5월 11일

* Jeju National University